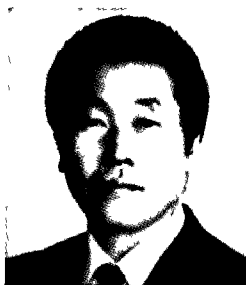


歸脾湯의 臨床實例

理事 朴 泰 植
(팔달 한약방)



歸脾湯은 우리 臨床家들의 가장 愛用하는 處方中의 하나다
요즘처럼 複雜多端하고 緊張과 興奮이 連續되는 社會, 刻
薄한 生活戰線과 職業戰線에 모든 사람의 情緒가 찌들데로 찌들
어 喜怒哀思悲驚恐, 卽 七情의 損傷으로 오는 病들이 主流를 이루
고 있다

歸脾湯은 東醫寶鑑 方藥合編 등에 治 憂 思 勞 傷 心 脾 健 忘 怔 沖
又 治 每 觸 遺 精 和 虛 火 吐 血 崩 帶 日 久 等 에 適 用 하 라 고 明 示 되 어
있지만 現代病名으로 神經衰弱 精神노이로제 性神經衰弱 등으로 오는 泌尿器係 疾患에도
神效함을 臨床으로 여러번 經驗한다 더군다나 婦人病에 應用해서 起死回生 시킬 때는 너무
나 고마운 處方이다 그 臨床의 한 두가지 實例를 적어 본다

● 患者 男 56歲 키 172cm 몸무게 57kg

● 情況과 容態

中小企業家로 事業에 失敗하고 家産을 완전히 탕진해 버렸다 家庭不和로 자식들도 불효
하며 가사생활 자체가 亂麻와 같았다 飲酒도 안하는 차분한 內性的인 성격으로 온갖 걱정
온갖 시름을 혼자 삭여야 했다 마침내 病 들어 廢人처럼 되어 絶望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
다 內科 泌尿器科 醫院 등에서 수개월을 治療 받았으나 別無效果 였다

● 主 症 狀

1 제일 重症이 尿失禁이다.

정확히 말하면 尿遺漏로 언제 나오는지 自覺不能이다

2 夢泄精을 한다

3. 食慾이 없고 消化不良이다.

4. 焦燥 不安 心悸亢進 怔沖하며 무섭고 겁이 많아졌다.

5 顏色이 蒼白하고 氣盡脈盡하다

6 健忘症과 不眠症이 심하다.

7. 便潤 或 泄瀉

• 歸脾湯 選定의 意義

患者의 主症狀이 憂思勞傷 心脾정冲 健忘을 다 合併하고 있다 過恐傷腎으로 每觸遺精하며 膀胱과 尿道의 中樞機能이 失調 不實하여 小便이 不隨意로 漏出 되고 있다 憂思心慮 過多로 心脾를 傷해 連鎖的으로 여러 病症으로 發現되니 그 原因治療의 名方이 本 歸脾湯이다.

處方 當歸 龍眼肉 酸棗仁炒 遠志 人蔘 黃기 白朮 白茯神 各一錢 木香 五分 甘草三分 烏藥 益智仁 山藥 各一錢 干五片 棗二枚

• 處方 調製

不眠에 加 熟地黃 五, 七錢하라 했으나 患者는 消化不良 大便 潤泄 함으로 熟地黃 代身 龍眼肉 加四錢 尿失禁으로 小便 不隨意로 遺漏 됨으로 疝氣 不足에 쓰는 名方 縮泉丸料를 합방하기로 했다 卽 烏藥 益智仁 山藥各一錢

一次 投藥 十日分을 服用하고 왔다

• 經過 容態

- 1 초췌한 얼굴이 생기가 들었다
- 2 尿失禁이 조금 나아졌다.
- 3 不安 焦燥 心悸亢進이 다소 鎮靜이 되었다
- 4 絶望感에서 希望이 보이는 생의 意慾이 살아 오른다
5. 1日 한 두시간씩 잠이 오기 시작했다
- 6 大便은 泄瀉는 없어지고 潤便

二次投藥 똑같은 處方으로 十日分 服用後

• 經過 容態

- 1 尿失禁의 症狀이 현저히 좋아졌다.
- 2 尿遺漏가 半減으로 줄어 들고 尿意가 생겨 放尿의 姿勢로 서면 오줌 줄기가 約20cm 정도로 이루어 졌다 그러나 똑 그치지 못하고 방울 방울 遺尿로 옷을 적신다.
- 3 食慾도 좋아지고 氣盡한 疲勞感이 점차 없어진다
4. 不安 焦燥 心悸亢進도 점차 없어지고 잠도 熟眠으로 3, 4시간으로 늘어 났다
- 5 大便은 潤便으로 日 二回

■ 임상

三次 投藥 똑같은 處方으로 十日分 服用後

- 1 生動感이 넘친다
2. 선생님 이제 다 나아 갑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있게 經過報告를 한다
- 3 이제 尿意 發動으로 日 6,7회 放尿를 한다
- 4 오줌 줄기가 10초 이상 持續된다

그러나 똑 그치지는 못한다 방울 방울 遺尿가 5초 이상 持續된다 그래도 이만하면 살 것 같다 옷이 젖지 않도록 조절이 되니 냄새도 없고 남의 앞에 섞일수가 있으니 얼마나 좋은 지 모르겠다 부인도 좋아하고 가정에 모처럼 활기가 돌아왔다

- 5 食慾과 食량도 점점 좋아지고 소화도 잘된다
- 6 잠도 5,6시간으로 熟眠하게 되었다 夢泄精도 언제 없어졌는지 없어졌다
- 7 大便도 潤便 日 1회 或 2회

四次 投藥 똑같은 處方으로 十日分 服用後

• 경과용태

1 患者 喜色滿面으로 자신에 찬 어조로 선생님 이제 다 나왔습니다 하고 스스로 感激한다

2 방울 방울 떨어지는 遺尿現狀은 없어졌으나 아무래도 끝이 힘이 약하고 옛날과 같이 마지막에 한번씩 射出하는 힘이 없다 한다

3 食慾과 食량 소화력도 이제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恢復되다

4 熟眠으로 5, 6시간 자니 만족스럽다

五次 六次 똑같은 處方으로 投藥

二十日分 服藥後 모든 病症이 소실되고 완전한 건강인으로 恢復되었다

● 患者 女 14歲 키 148cm 몸무게 32kg

• 情況 容態

어머니와 함께 얼굴이 창백하고 겁에 질린 인상으로 약방으로 들어 왔다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니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初經이 始作한 후 수개월간을 下血하니 아이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病院에서 繼續 治療를 해도 낫지도 않고 이제 밥도 못 먹고 病院에서 水液注射와 抗生劑를 맞고 있습니다' 고 한다 血脫로 인한 기진한 모습이 심상치 않게 느껴진다.

• 主 症狀

1. 얼굴이 희다못해 蒼白하다.

2. 不思飲食 밥을 전혀 못 한다.
3. 미음을 약간씩 먹이고 있다.
4. 大便도 언제 봤는지 모른다
5. 不安焦燥 정충으로 깜짝 깜짝 놀란다.
6. 성격이 內性的이며 부끄러움이 많다
7. 初經이 始作後 내내 下血 崩帶가 繼續된다
8. 不眠으로 極度로 神經過敏

• 處方選定

初經의 精神的衝擊으로 정상적 生體調節의 힘을 잃었다 憂思心慮 過傷으로 心脾가 극도로 衰弱해 不思飲食 心悸亢進 정충症이 오래 持續되어 전신이 氣盡해져 마침내 子宮收縮機能을 잃고 崩漏帶下로 이어졌다 心脾 損傷 脾經 失血에 名方인 歸脾湯을 選定한다

• 處方 · 當歸 龍眼肉 酸棗仁 遠志 人蔘 黃기 白朮 白茯苓 地榆 荊芥炒 防風 升麻 熟地黃 各一錢 木香 五分 甘草 三分 人蔘倍加 干5片 棗二枚

一次 投藥 十日分 服後

經過 容態

1. 崩漏 下血이 완전히 中斷되다
2. 二日分 服用後부터 崩漏下血이 줄어들기 시작 5, 6일分 服用後 약간 있을 정도 10일分 服用하니 완전히 없어졌다.
3. 얼굴에 화색이 일고 食慾이 생겨 밥을 먹게 되었다
4. 睡眠도 좋아 졌으나 아직 過敏해 熟眠을 못한다

二次 投藥

崩帶가 없어졌으므로 一次處方에서 地榆 荊芥炒 防風 升麻 類 등을 去하고 10일分 投藥하다

服用後 經過 結果

모든 症狀이 좋아져 완전히 恢復되어 학교에 다닌다는 전화가 왔다 죽어가는 아이 살려준 그 恩惠 잊지 않겠다는 그의 어머니의 간절한 인사도 있었다.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동 T 314-0815)